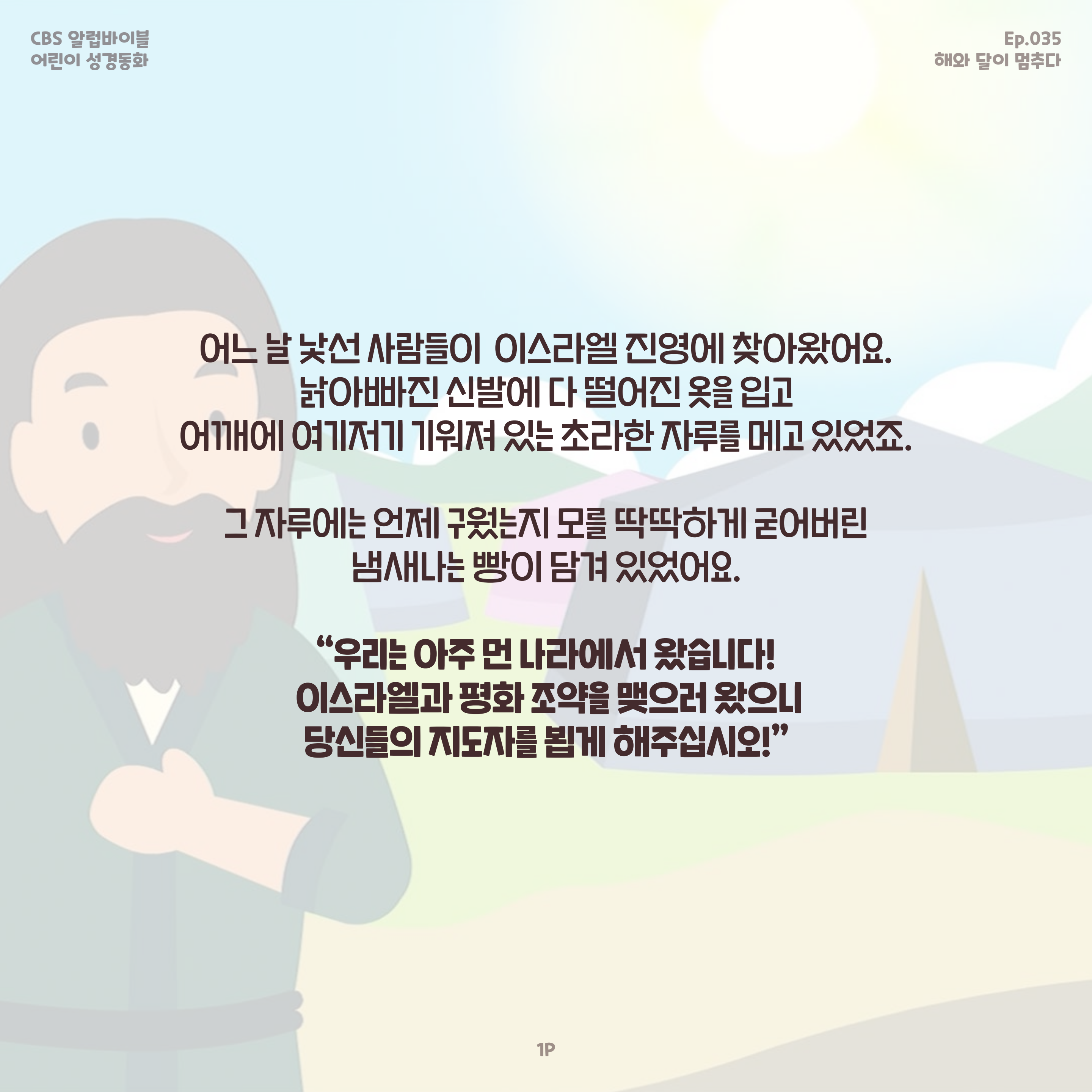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35

해와 달이 멈추다

(여호수아 9:3~10:28)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왔어요.
늙아빠진 신발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어깨에 여기저기 기워져 있는 초라한 자루를 메고 있었죠.**

**그 자루에는 언제 구웠는지 모를 딱딱하게 굳어버린
냄새나는 빵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으니
당신들의 지도자를 뵈게 해주십시오!”**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당신들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뭘 믿고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단 말이요?”**

**“저희는 먼~ 나라, 아주아주 먼~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만드셨다는 소식을 들었습죠.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미리 평화 조약을
맺으러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넓은 자루에서 빵을 꺼냈어요.
빵이 어찌나 오래되었던지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금방 구운 뜨거운 빵을
넣어서 길을 떠났는데요.
이렇게 말라버려서 곰팡이까지 피지 않았습니까.
또 저희의 신발과 옷을 좀 보십시오.
오죽 오랫동안 걸어왔으면,이렇게나 낡아버렸겠냐구요.”

그걸 본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살짝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보지도 않은 채
그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버렸죠.

**“우리 이스라엘이 나중에 당신네 나라까지
들어간다 해도, 당신 나라 사람들만큼은 살려줄 것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소.”**

그리고 사흘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곳에 위치한
‘기브온’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기세 좋게 기브온을 함락시키려던 그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어요.

**‘기브온’ 사람들 중에, 며칠 전에 봤던 초라한
행색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일부러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늙은 자루와 곰팡이 핀 빵을 들고 와서는 여호수아를 속인 거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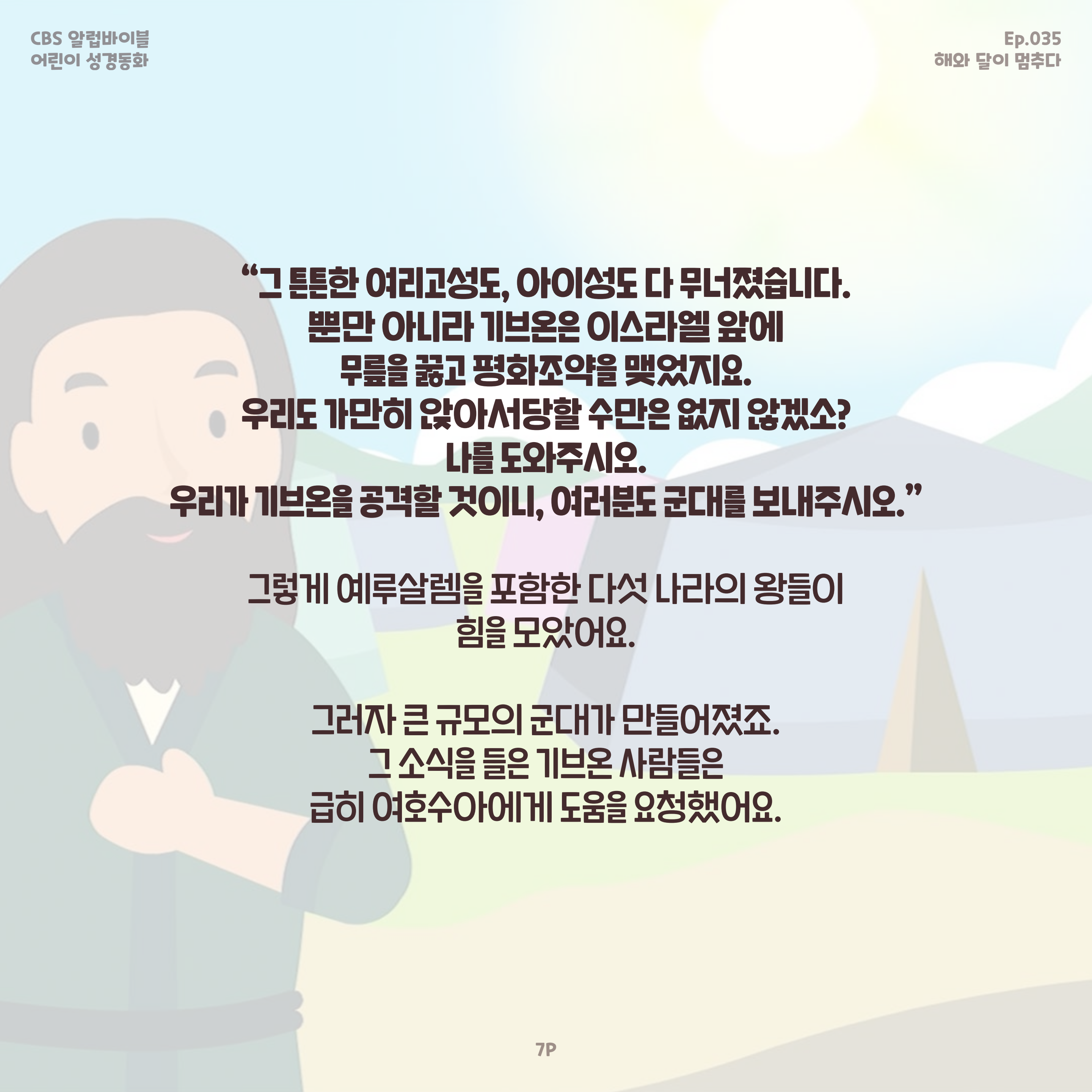
**“우리로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이스라엘에게
다 함락되었다는데 그런 죄라도 부리지 않으면
같은 처지가 될까 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과심한 생각이 들었고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늘어놨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대신 너희는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기브온의 사람들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목숨을 잃는 것보단 노예가 되는 편이 나았으니까요.
한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주변 지역을
차례차례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에게도 전해졌어요.

아도니세덱 왕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웃 나라 왕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튼튼한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온은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평화조약을 맺었지요.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당할 수만은 없지 않겠소?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할 것이니, 여러분도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함한 다섯 나라의 왕들이
힘을 모았어요.**

**그러자 큰 규모의 군대가 만들어졌죠.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가 되기로 했고
그 말은, 당신들이 우리의 주인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 나라의 왕들이 전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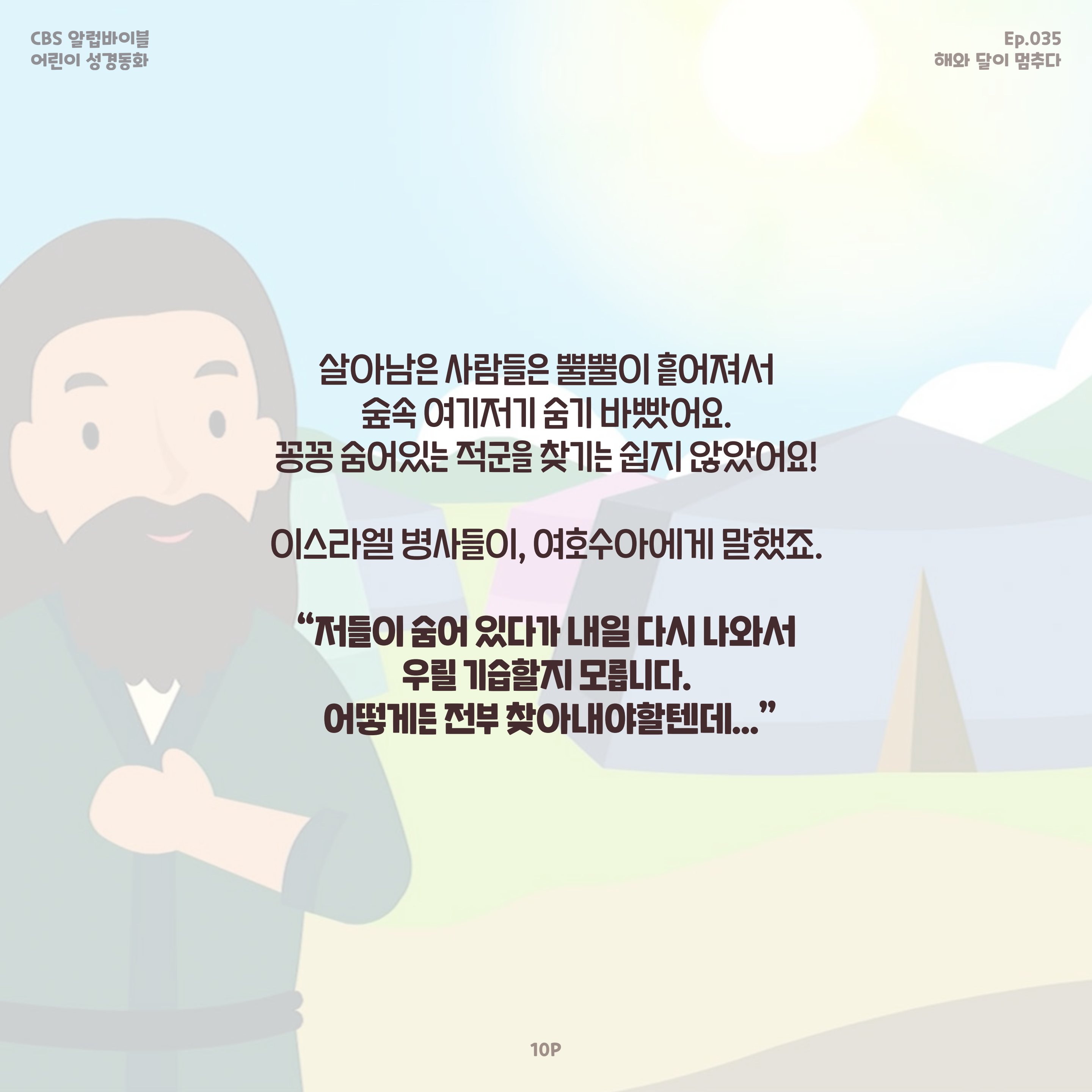
여호수아는 곧바로 군사들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그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저들 중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의
기세는 정말로 엄청났어요.
다섯 나라의 군대가 모였지만 적군은 금세
겁에 질려서 부리나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큼지막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투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다섯 나라 군대들은 큰 피해를 입었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숲속 여기저기 숨기 바빴어요.
공공 숨어있는 적군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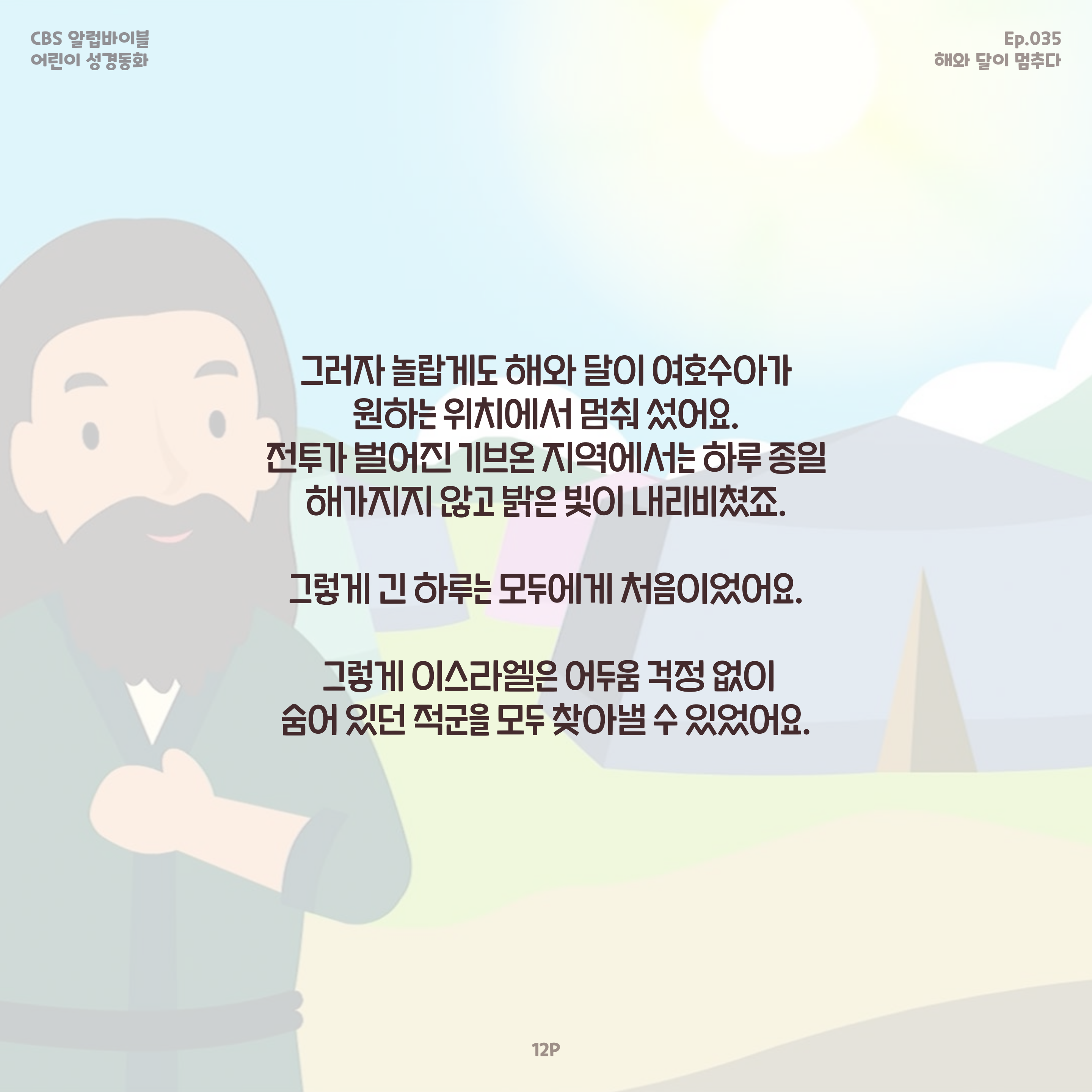
이스라엘 병사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죠.

**“저들이 숨어 있다가 내일 다시 나와서
우릴 기습할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전부 찾아내야할텐데...”**

**“하지만 여호수아님
이미 해가 누엿누엿 지고 있습니다.
저들을 다 찾아내기에 하루라는
시간은 너무도 짧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잠시 고민을 한 뒤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늘에 있는 태양아, 기브온 땅 위에 멈춰서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달아, 너는 멀찍이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 서거라.”**



그러자 놀랍게도 해와 달이 여호수아가
원하는 위치에서 멈춰 섰어요.
전투가 벌어진 기브온 지역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지지 않고 밝은 빛이 내리비쳤죠.

그렇게 긴 하루는 모두에게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둠 걱정 없이
숨어 있던 적군을 모두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주변 지역들을 하나하나 정복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리잡았죠.**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이스라엘은 큰 교훈을 얻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면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진다는 걸 말이죠.**